

2)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말입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창 3:6) 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즉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고 싶다는 욕망과 확신이 죄의 본질입니다. 창세기는 1장과 2장에서 창조 이야기를 거론한 뒤에 곧장 3장에서 인간 타락을 말하고, 4장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던 창조가 즉시 부정되는 듯한 이야기 구성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인간 삶을 파괴하는 죄가 존재론적인 깊이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신학 용어로는 원죄이고 철학 용어로는 ‘악의 평범성’(한나 아렌트)입니다.

3) 작년 연말에 저는 국회 정문 옆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목사들에 관한 뉴스를 인터넷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대형교회 목사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대형교회 목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개혁적인 목회를 지향하던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그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한 것을 보고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의 핵심은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들은 동성애 행위와 동성애자를 구분합니다. 그게 구분되는지도 이해하기 힘들기는 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그 문제를 소상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진술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과 같은 율법입니다. 안식일에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노동해야 합니다. 병도 고쳐야 합니다.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야 합니다. 성소수자라는 말에 알 수 있듯이 동성애도 이런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2월 초 프란치스코 교황은 언론 인터뷰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법은 죄이고 불의이며, 동성애 성향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교회로부터 환영받아야 한다고 밝혔고, 영국 성공회의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와 이안 그린쉴즈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 의장도 이러한 교황의 발언을 지지했습니다. 세계 교회는 대부분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교회만 자신들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자리에 올라선 것처럼 독단적입니다. 저는 그 1인 시위에 나선 목사들이 바로 시각장애인을 안식일에 고쳤다고 예수께 시비 걸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성애라는 도그마에 사로잡혀서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을 배척하는 당신들이야말로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3년 3월26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세계 교회력 「가」해 18주



영천 북안면 대원당길111 마당에 피어 있는 목련꽃이다. 색깔이 화려하지는 않으나 기품이 있어 보이는 저 꽃도 곧 툭 하고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떨어지는 순간은 2초가 되려나. 봄비가 내린 지난 목요일에 정목사가 스마트폰 사진기 기능으로 찍은 사진이다.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친교 5시-5시20분/공부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o/church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그리스도교 전통은 인생의 최대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난 2천 년 예배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찬송 17장 (사랑의 하나님)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과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1억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에서 초속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9분간 날아온 햇빛과/ 우주 가운데 지구에만 풍성한 물과/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리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시간과 오늘의 공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특히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말이나 형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영광송) ... 다 함께

이강민

영 - - - - - 광 영 광 영 - 광 영 - - 광
영 - - - - - 광 높 이 계 - 신 주 - 계

[알리는 말씀]

* 다음 주일 (4월 2일)에는 정목사님과 전 교우가 함께 식사할 예정입니다.

* 예배 후 데칼로그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 지난주일(3월19일) 헌금: 500,000원(주일헌금 60,000원 통장헌금 440,000원)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4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 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장소
4월2일	정용섭목사	윤혜정(사회) 최선아(봉독)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박정덕 /시청각실
4월9일	이춘우목사	이기령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오미영 /아트컬리지5
4월16일	박재진목사	이유선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김희란 /아트컬리지5
4월23일	김동호목사	고중흥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이유선 /아트컬리지5
4월30일	이춘우목사	오미영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윤혜정,운영위원 /아트컬리지5

지난 주일(3월19일) 설교 발췌

제목: 바리새인의 '죄' 문제 (요 9:35~41)

1) 요한복음 9장은 예수께서 맹인을 고친 사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의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죄로 인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되찾은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과 그의 부모를 압박합니다. 예수를 부정하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서 율법적인 정통성이 있으나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불분명한 '듣보잡'이니 그를 감싸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강요와 설득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2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3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의 공동예배를 마쳤으니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일상에 깃든 기쁨 충만을 놓치지 마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공동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칠고 무기력하며, 때로는 영악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에만 매달리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공연한 일에 낙심하거나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영적인 풍요로움을 외면하고 생산과 소비의 악순환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개인 참회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 선포

목사: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자비는 우리의 그 어떤 잘못도 용서 못 할 일이 없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제 교회의 예배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뢴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거룩 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 (상투스) ... 다 함께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베델의 노래」 180장 (남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 다 함께

Lina Sandell

Oscar Ahnfelt

1. 날마 다 숨쉬 는 순간 마 다 내 앞 에 어 려운 일 보 네
 2. 날마 다 주님 내 곁 에 계 셔 자 비 로 날 감 싸 주 시 네
 3. 인생 의 어 려운 순간 마 다 주 의 약 속 생 각 해 보 네
 Day by day, and with each pass-ing mo-ment, Strength I find to meet my tri-als here.

주님 앞 에 이 몸을 맡 길 때 슬 픔 없 네 두 려 움 없 네
 주님 앞 에 이 몸을 맡 길 때 힘 주 시 네 위 로 주 시 네
 내 맘 속 에 믿 음 잃 지 않 고 말 씀 속 에 위 로 를 얻 네
 Trust-ing in my Fa-ther's wise be-stow-ment, I've no cause for wor-ry or for fear.

주님 의 그 자 비로 운 손 길 항상 좋 은 것 을 주 시 네
 어 린 나 를 품 에 안 으 시 사 항상 평 안 함 을 주 시 고
 주님 의 도 우심 바 라 보 며 모든 어 려 움 을 이 기 며
 He whose heart is kind be-yond all mea-sure, Gives un- to each day what He deems best,

사 랑 으 로 아 픔 과 기쁨 을 수 고 와 평 화 와 안 식 을
 내 가 살 아 숨 을 쉬 는 동 안 살 피 신 다 약 속 하 셸 다
 흘 러 가 는 순 간 순 간 마 다 주님 약 속 새 겨 뵈 니 다
 Lov-ing-ly its part of pain and plea-sure, Min-gling toil with peace and rest.

답후 1:12

말 씀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상의 온갖 풍문으로 허약해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막아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에스겔 37:1~14 ... 윤혜정 집사

성시교독 시편 130:1~8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깊은고난 가운데서 제가주님 부릅니다 주님이여 제소리를 부디들어 주십시오
 제가에원 하는소리 귀기울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죄악 지켜보고 계시는데 누가감히 주님앞에 버틸수가 있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죄를 용서하여 주시기에 저희들은 주님만을 우러르며 살립니다
 -주님만을 기다리고 영혼다해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랍니다 제가주님 바랍니다
 내영혼이 간절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네 동트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동트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백성들아 크신능력 주님만을 바라보라 인자하심 구원능력 주님께만 속했으니
 -주님만이 우리들을 큰죄에서 건지시네

둘째말씀 로마서 8:6~11 ... 윤혜정 집사

*셋째말씀 요한복음 11:28~44 ... 윤혜정 집사

*응답찬송 644장 (아멘) ... 다 함께

아 멘 아 멘 아 멘 아 멘
 아멘송

설교 하나님의 영 ... 이춘우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1절 ... 다 함께